

# 우리 민족의 원형적 심성을 찾아가는 길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삼국유사(전2권)》 펴낸 고운기씨



합리주의적 사고방식에 젖은 현대인들에게 《삼국유사》는 가까이 하기 어려운 난해한 책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 그리고 귀신이 서로 말을 하고 살을 섞는 기사이적이 횡행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13세기의 《삼국유사》를 21세기에 불러내 그 신비하고 기묘한 이야기를 푸는 영매처럼 주술에 갇힌 고전을 우리말로 풀이해준다. 우리는 이 책에서 우리 민족의 원형적 심성이 녹아 있는 아름답고도 무서운 이야기들을 만나게 된다.

논문들은 셀 수 없이 많지만, 《삼국유사》를 본격적으로 해설한 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 고전의 첫손에 꼽히는 책인 만큼 의외다. 고씨는 원래 향가를 학문의 주제로 삼았는데, 《삼국유사》를 읽다가 자기도 모르게 매혹돼버렸다. 급기야 일연의 작가론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일연 평전, 《삼국유사》 연구서·번역서·해설서를 펴내기에 이르렀다.

“학계에서 《삼국유사》를 연구하는 학자는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삼국유사》에 대한 텍스트 비평은 드물었죠. 《삼국유사》를 우리 시대에 살아 있는 고전으로 되살려보고 싶었습니다.”

이 책은 두권으로 나뉜다. 1권에는 《삼국유사》의 전반부인 〈기이〉편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서술했고, 2권에서는 후반부인 〈홍법〉편 이하를 다루면서 불교문화사와 당시 민중들의 삶과 사랑, 노래를 풀이한다. 《삼국유사》의 순서에 따라 이야기의 배경, 기이한 이야기에 담긴 상징적 의미, 고대문헌을 통한 역사적 고증 등을 엮어간다. 본문 곳곳마다 사진작가의 절묘한 사진을 배치해 현장의 숨결을 살렸다.

《삼국유사》는 중층적인 텍스트다. 그것은 고대 역사서이기도 하고 신화와 전설, 야담, 시가가 집약된 문학작품이기도 하다. 고씨는 오늘날의 학문적 분류체계에 비춰보면 《삼국유사》가 설화집에 가장 가깝다고 평한다. 물론 이 설화에는 역사적 사실, 민속학적 정보, 종교적 지혜 등이 담겨 있다. 따라서 《삼국유사》를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서양의 그리스 로마 신화는 방대한 이야기들이 섞여들면서 변형되고 재창작돼왔죠. 마찬가지로 《삼국유사》에도 그 시대까지 이어져오던 다양한 기록이나 이야기들이 스며들었을 것입니다. 선화공주 이야기의 경우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공주의 존재 자체가 의심스럽죠. 하지만 그 당시 여러 지역에서 떠돌던 이야기들이 선화공주 이야기라는 서사물로 정착됐을 것입니다.”

## 13세기의 필터가 끼워진 삼국시대 이야기

고씨는 《삼국유사》가 13세기적 관점에서 씌어진 책이라는 점을 잊지 말

신라 말기인 경명왕 7년(920)의 일이다. 이 해 2월에 황룡사 탑의 그림자가 금모(今毛) 사지의 집 정원에 열흘 간이나 거꾸로 서 있었다. 또 10월에는 사천왕사 오방신(五方神)의 활줄이 모두 끊어졌고, 벽에 그려진 개가 뜰로 나와 달리다가 벽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일연의 《삼국유사》 〈기이〉편 〈경명왕〉조에 실린 기록으로, 웬지 섬뜩하고 소름이 돋는 이야기다.

과학과 합리주의의 세례를 받은 요즘 독자들에게 이 이야기는 어떻게 읽힐까. 그저 황당무계한 판타지의 한 장면으로 넘겨버리지 않을까. 사실 이 사건은 진위를 떠나 몰락의 길에 접어든 한 왕조의 암울한 정조를 보여준다. 《삼국유사》에는 이처럼 기이한 신화와 전설, 민담 등이 즐비하다. 합리주의적 사고방식에 젖은 현대인들에게 《삼국유사》는 가까이 하기 어려운 난해한 책일 뿐이다.

## 현대적 관점에서 되살린 고전설화의 세계

시인이자 국문학자인 고운기씨(42, 연세대 국문과 강사)가 펴낸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삼국유사(전2권)》(현암사)는 《삼국유사》의 기묘한 세계 속으로 독자들을 이끈다. 거기서는 아이가 알에서 깨어나고 호랑이가 아리따운 여인으로 변신하며 사람이 바위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등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출몰하는데, 입심 좋고 해박한 안내자의 설명을 듣다 보면 그 이야기에 숨은 뜻을 이해하게 된다.

사실 국내에서 《삼국유사》 번역본이나 《삼국유사》를 다룬 단편적인

것을 당부한다. 일연이 살았던 시대는 국내외적인 격동기였다. 당시 고려에서는 문신귀족들의 차별에 불만을 품은 무인들이 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잡았다. 또한 중국에서는 한족인 송나라가 변방의 오랑캐인 몽고족에게 멸망당했다. 이런 국내외적 격변기를 온몸으로 겪었던 일연의 시대의식은 자연스레 책 속에 반영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일본에서 강의하던 때 일입니다. 한 대학원생이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삼국유사》는 13세기 때 쓴 책인데, 왜 학자들은 7~8세기 책인 것처럼 이야기하느냐구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삼국유사》는 13세기의 필터가 끼워진 책이죠. 일연 당대의 문화와 사회를 무시하고서는 《삼국유사》의 세계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유교적 합리주의와 사대주의적 관점이 담긴 《삼국사기》와 달리 《삼국유사》에 비합리주의적 기사이적이 담겨 있다거나 민족적 주체성을 강조한 단군신화 등이 수록될 수 있었던 것도 당대의 세계관과 역사관 때문이었다. 또한 정사인 《삼국사기》와 달리 한 개인의 사찬서인 《삼국유사》는 서술체계에서도 훨씬 자유로울 수 있었다.

고씨는 《삼국유사》의 특이한 서술기법에 주목한다. 《삼국유사》의 〈기이〉편은 한 조에 한 왕대의 특징적인 사건을 하나씩 뽑아 그것으로 시대의 성격을 보여주는데, 이는 동시대의 다른 역사서에서는 찾기 어려운 개성적인 서사전략이다. 두 인물을 짝지어서 서술하는 것도 《삼국유사》의 특이한 기법이다. 원효와 의상, 미추왕과 죽엽군, 노힐부덕과 달달박박 등이 그 예다.

“두 인물을 짝패로 등장시킨 것은 사마천의 《사기》나 중국의 고승전 등에서 시도되고 있죠. 하지만 《삼국유사》에서는 이런 기법이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두 인물 가운데 한 인물을 짝아내리거나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두 사람 모두 주인공이고 표면상의 조연이 사실은 주연으로 입장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광덕과 엄장의 이야기는 이런 역할 반전극을 잘 보여준다. 친구인 광덕과 엄장은 먼저 성불하는 사람이 알리고 가자고 약속했다. 아내를 두었던 광덕이 먼저 뜻을 이루자 엄장은 광덕의 부인을 거두어

몸을 섞으려 했다. 하지만 광덕의 아내는 남편과 함께 살면서 같은 침상에 눕지 않았다고 말하며 엄장을 꾸짖었다. 엄장은 뒤늦게 깨닫고 성실히 수행해 서방정도로 갔다는 이야기다.

“이 이야기에서 독자는 돌부처 같은 광덕보다 육욕에 솔직했던 엄장에게 인간적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광덕이 주인공처럼

보이죠. 하지만 진짜 주인공은 엄장이었던 거죠. 이런 서사전략은 등장인물 모두를 살리는 것이죠. 1970년대에 이순신을 성웅으로 추앙하기 위해 원균을 폄하한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문학적 심미안 갖춘 세련된 문화인, 일연

《삼국유사》에서 향가를 지나칠 수는 없다. 향가 없는 《삼국유사》는 사향 없는 노루와 같다. 신라인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정서를 담아낼 표기수단으로 향찰을 발명했고, 〈찬기파랑가〉 〈제망매가〉처럼 ‘천지간 귀신이 감탄’ 할 만한 절창을 만들어냈다. 《삼국유사》에 향가가 실릴 수 있었던 것은 일연의 문학적 심미안과 시에 대한 남다른 식견을 알려준다. 고씨가 일연을 ‘세련된 문화인’ 이라고 평가한 것도 이 때문이다.

“《삼국유사》에는 비록 향가가 14수밖에 실려 있지 않아 아쉽지만, 여기에 실린 시보다 더 뛰어난 향가가 있을까 의심스러워요. 그가 가려 놓은 시만 보더라도 더 이상 이보다 뛰어난 작품이 없을 정도로 일연의 시적 감식안이 높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향가뿐만 아니라 《삼국유사》에 실린 찬은 일연을 당대의 일급 시인으로 꼽기에 손색이 없다. 찬은 이야기의 끝에 자신의 소회나 인상을 적어 화룡점정의 묘미를 살린 시다. 여인으로 변한 관음보살이 달달박박을 찾았다가 거절당한 일을 두고 쓴 다음의 찬시는 일연의 높은 시적 성취를 보여준다.

“푸른 빛 떨어지는 바위 앞, 문 두드리는 소리 / 날 저문데 누가 구름 속 빗장 문을 당기는가 / 남쪽 암자 가까운데 그리고 갈 것이지 / 푸른 이끼 밟고서 내 뜻을 더럽히지 마오.”

“사마천의 《사기열전》에서도 찬이 나오기는 하지만 주로 사관이 인물을 포괄하기 위해 쓰입니다. 일연의 찬도 이런 기능이 없지는 않지만, 주로 책에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쓴 것으로 보입니다. 찬은 칠언절구로 통일돼 있어서 전체 책의 흐름을 이어주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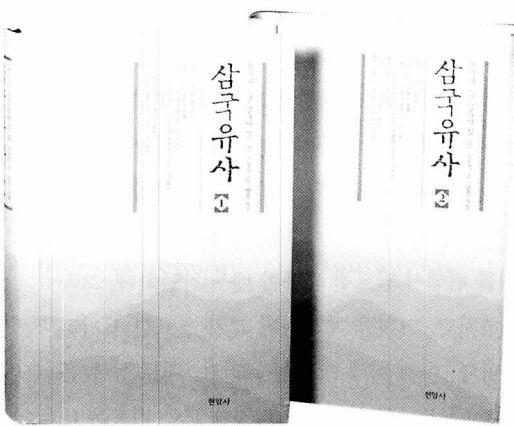
이 책을 읽어가는 독자라면 어느 순간부터 기이한 느낌을 받을 것이다. 불교식의 인연이랄까. 바로 3인의 ‘운수행각’ 때문이다. 일연이 전국을 떠돌며 흠어진 이야기를 채집하고 있다면, 천몇백년 후에 고운기씨와 사진작가 양 진씨가 각각 글과 카메라로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3인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듯하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이미 그들의 순례길에 따라 나섰기 때문이다. —박천홍기자

### “내 학문은 이 책에서 시작해서 이 책으로 끝날 것이다.”

고운기씨는 1980년대 초 영인본 《삼국유사》를 한 권 샀다. 그는 이 책 맨 앞장에 다음과 같이 적어뒀다. “내 학문은 이 책에서 시작해서 이 책으로 끝날 것이다.” 스스로 써 내려간 이 운명적 암시의 글은 부적의 조화처럼 채 20년이 되기 전에 효력을 거뒀다.

그는 이미 일연과 《삼국유사》를 주제로 한 4부작을 완성했다. 《일연》(한길사), 《삼국유사》번역서(홍익출판사), 《일연과 삼국유사의 시대》(월인)를 차례로 펴낸 데 이어 《삼국유사》해설서까지 출간해 일연과 《삼국유사》연구의 한 매듭을 지었다.

그는 앞으로 ‘삼국유사’ 사전’을 만드는 것이 꿈이다. 2006년이 일연 탄생 8백주년인데, 그때 맞춰 사전을 출간하면 뜻 깊은 일이라 생각한다.



현암사/A5신/384면 내외/각 20,000원